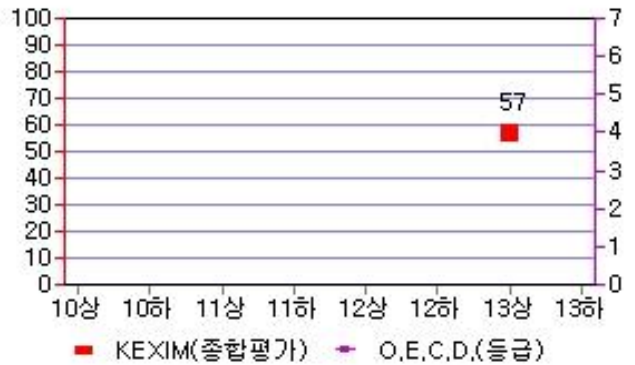


국 별 평 가 보 고 서

국 가 명	뉴칼레도니아(New Caledonia)				
최종평가일	2013.02.27	평가등급	C1	HIPC 적용여부	해당사항 없음

	2009	2010	2011	2012		2009	2010	2011	2012
GDP규모(억달러)	94.9	88.5	96.0	90.8	경상수지/GDP(%)	-	-	-	-
경제성장률(%)	0.4	1.5	1.9	2.2	외환보유액(수입개월수)	-	-	-	-
소비자물가상승률(%)	0.9	2.7	2.4	1.7	총외채잔액/총수출(%)	-	-	-	-
재정수지/GDP(%)	-	-	-	-	D.S.R(%)	-	-	-	-

정량평가 (0%)	국내경제	38.00	50%	19.00
	대외거래	0.00	25%	0.00
정성평가 (100%)	외채상환능력	0.00	25%	0.00
	정량소계		100%	*
정성평가 (100%)	경제	55.00	20%	11.00
	정치/사회	58.00	50%	29.00
	국제신인도	56.66	30%	17.00
	정성소계		100%	57.00
종합평가			200%	57.00



* 체제전환지수 0를(을) 가중한 점수

OECD 등급원용	A⇔0/1	B1⇔2	B2⇔3	C1⇔4	C2⇔5	C3⇔5	D1⇔6	D2⇔6	E⇔7
수출입은행	80 이상	70 이상	60 이상	50이상	45이상	40이상	35이상	30이상	30미만

주요기관 국별 신용도 평가 결과					
추 이		최 근	평 가 일	종 전	평 가 일
O.E.C.D		-	-	-	-
S&P		-	-	-	-
Moody's		-	-	-	-
Fitch		-	-	-	-

주요 ECA 인수 태도	
미 국 (EXIM)	-
영 국 (ECGD)	-
독 일 (Hermes)	-

【 경제 】

긍 정 적 요 소	부 정 적 요 소
<p>○ 풍부한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.</p> <p>-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25%를 보유하고 있으며, 국토의 60%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됨.</p> <p>○ 니켈 수출 증가로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.</p>	<p>○ 니켈산업에 대한 의존도(GDP의 10%, 수출액의 93%)가 매우 높고 그 외의 산업 발달은 저조하여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.</p> <p>○ 니켈 외에 다른 수출품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소비재,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함.</p>

【 정치/사회 】

긍 정 적 요 소	부 정 적 요 소
<p>○ 원주민 국기사용에 대한 의견대립에 따른 잦은 정권교체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으나, 현정권(Avenir Ensemble, AE) 집권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음.</p> <p>○ 2014년 이후 프랑스로부터 독립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나, 독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.</p> <p>- 독립을 찬성하는 토착 원주민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여당과 제1야당 또한 독립에 반대하고 있음.</p>	<p>○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원주민을 중심으로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.</p>

【 국제신인도/외채상환능력 】

긍 정 적 요 소	부 정 적 요 소
<p>○ 대외채무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, 파리클럽, IMF 등에 차입 잔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.</p>	

【 종합의견 】

<p>○ 니켈산업과 관광산업이 뉴칼레도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완만히 상승하여 2012년 2.2%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.</p> <p>○ 니켈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프랑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.</p> <p>○ 프랑스로부터의 독립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독립을 반대하는 집권여당이 최근 정국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. 실업문제 등에 따른 파업 및 시위발생 등 사회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.</p>
